

한국 영화론

(〈신필름〉과 신상옥)



1 영화감독 신상옥

1925년 함경북도 청진 출생, 3남 2녀 중 막내,
화가 지망생으로 일본 유학 중 귀국, 최인규의 문하생으로 출발.



2 신필름의 출발

- 1952년 신상옥이 설립 <신상옥 프로덕션>에서 출발
- 명칭의 변경과 회사의 발전과 분화



- 1952년 <신상옥 프로덕션> : <악야>(1952), <코리아>(1954) 제작

3. 신필름 변천사

영화사	존립기간	작품
영화예술협회 (영상예술협회)	1952-1954	
서울영화사 (배급 전담)	1955-1962	<지옥화>, <어느 여대생의 고백>, <그 여자의 죄가 아니다>, <자매의 화원>(1959)
신상옥 프로덕션	1955-1961	<로맨스 빠빠> (1960) 명보에서 흥행성공. 이강천의 <사랑의 역사>, 신상옥의 <이 생명 다하도록>, <성춘향>(1961) 74일 43만 흥행성공 대형영화사 성장 토대. 9편 제작. 감독 신상옥과 여배우 최은희의 힘
주식회사 신필름	1961.09.18-1970	<성춘향> 성공으로 원효로 촬영소 인수. 신필름 부설 연기실, 102편 제작 = 1966년 9월 홍찬이 57년에 설립한 2만 5천 평의 안양영화 촬영소를 인수하고 규모 확장, 12월에 안양촬영소 내에 '신필름 영화예술학교'를 설립
주식회사 안양필름	1967-1968	안양 촬영소 스튜디오 활용. 대표 최경옥, 명보 극장 배급 체인(1960), 할리우드극장과 배급체인(69)

영화사	존립 기간	작품
신아필름(안양필름 승계)	1968.06.27-1970	대표 신태일, 신필름 예술학교(안양예고)설립, 안양촬영소 인수
덕흥 영화사(67년 말 안양 필름으로 통합)	1967	대표 지우성 <마적> 등 4편 제작
안양영화제작주식회사	1970-1973	대표 이수길, 27편
주식회사 신프로덕션 (73년 4차 영화법 개정 후 안양영화제작주식회사를 개칭한 것으로 추정)	1973.03.31-1975.11.28	29편 <장미와 들개> 예고편 중 검열 삭제된 키스 씬 상영문제로 등록 취소
신필름 재건	1983-1986	북한에서 활동, 영화에 정치적 불간섭, 연간 미화 300만 달러 지원 조건으로 제작 작품 <돌아오지 않은 밀사>, <탈출기>, <소금>, <춘향전>, <불가사리>,
LA 신필름 재건	1986-2006	LA 선셋대로에 감독협회 빌딩 5층, <3년자스>(1993) 제작. <징기스칸> 제작 시도 실패

4. 신상옥과 신필름의 활동 의의

- 영화계입문 : 신태선의 권유로 고려영화협회 미술부로 입사
최인규의 <자유만세> 미술부
- 성장 배경: 영화의 기업화라는 정부의 정책과 호응
예) 1957년 수도영화사 홍찬이 건설한 안양촬영소 시설 인수, 안양예술학교 건설,
명보와 할리우드 체인 구축 등 메이저의 기반 닦기
- 1962년 영화사 등록기준 강화, 15편 이상 제작의무화, 구비조건 강화로 7대 영화사 통폐합

■ 영화사별 활동 감독

극동

- 유현목
- 김기덕
- 이형표

신필름

- 신상옥
- 최경옥
- 김용덕
- 은세계

동성

- 김화랑
- 심우섭
- 이성구

한국영화

- 임권택
- 강대진

범아

- 정창화
- 이만희

한양영화

- 김소동
- 김수용

세기
상사

- 조금하
- 김승옥

한국
예술영화

- 김기영
- 이봉래
- 한형모
- 장일호

4. 신상옥과 신필름의 활동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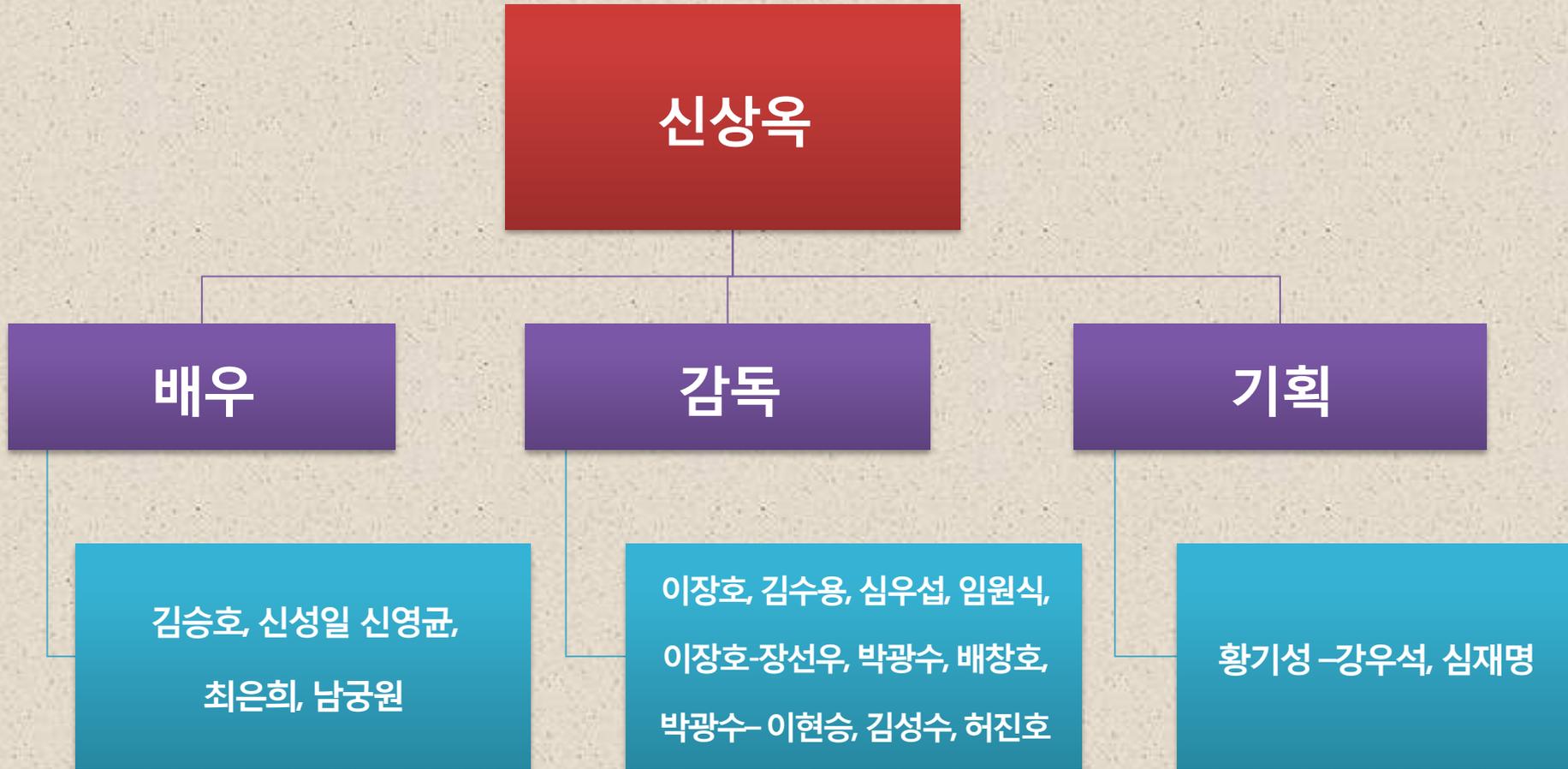
신필름의 활동 의의

- 신필름은 특정 영화사 개념보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립될 필요
- 신상옥 감독이 운영한 영화사, **신상옥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영화사**
- 신필름 제작 작품 : 224편, 한국영화계의 대형 영화사 (major company) 전환가능
- 신필름은 신상옥이 영화제작을 통해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대형영화사를 지향

쇠퇴 배경

- 회사운영방식의 비합리성, 경영의 전문성 부족. 신상옥 개인의 대한 의존
- 제작편수 증가로 인한 제작비 조달과 합리적 집행 문제로 회사 경영 부실화
- 정책적 측면에서 제작편수 무리한 요구
- 외국영화 수입권 배정으로 인한 국산 영화 종속화

5.신필름의 계보



6. 감독 신상옥 (1925-2006)

1) 개인사

함경북도 청진 출생, 한의사 집안, 삼류극장에서 <모던 타임즈> 등 관람
1953년 최은희와 결혼, 1978년 납북되어 1983년 탈출

2) 평가

미장센의 대가. 시각 중심의 영화, 사회 비판적 영화, 문예와 사극 등 장르 영화 제작,
영화 작가와 영화 제작자의 두 가지 요소. 김수남은 영화라는 미디어와 인간 신상옥
그리고 시대와 사회라는 트라이앵글 속에서 불면불휴(不眠不休)

3) 작품 세계

- 리얼리즘 영화 <악야>, <지옥화>(1958) 최인규의 영향
- 문예영화 <꿈>(1955), <젊은 그들>(1955), <무영탑>(1957) 현실을 직시하는 열린 영화와 예술로 탐닉하는 닫힌 영화 양면성(김수남)
- 사극과 서사극의 연출, 사극(costume film)은 역사를 배경으로 풍속, 의상, 삶의 형태를 스펙터클로 제공, <성춘향>, <이조여인잔혹사> 서사극(epic film)은 전설적인 이야기의 주인공과 역사적인 영웅의 극적인 삶 <대원군>, <연산군>

6. 감독 신상옥 (1925-2006)

4)작품

<악야>(1952), <코리아>(1954), <꿈>(1955), <성춘향>(1961),
<로맨스빠빠>(1961), <빨간 마후라>(1964) 등 76편 제작

5) 신상옥에 대한 단상

- 제작과 감독을 겸직한 영향력 있는 영화인, 한국영화 제작 규모의 확대
- 한국영화 글로벌 비전 제시
- 영화와 정치의 밀월과 폐해
- 장르영화와大作 영화의 시도
- 영화의 기업화 가능성 모색

7. 대표작

<사랑방 손님과 어머니>

: 1920년대 배경, 과수댁은 외동 딸과 시어머니와 지내며 사랑방에 남편 친구가 하숙을 한다. 과수댁과 남편 친구인 화가가 서로 호감을 갖고 있으나 유교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절제하고 떠나 보낸다.

- 어린 딸이 화자가 되어 어머니와 아저씨의 관계를 설명
- 근대성의 도입 흔적 : 피아노, 서구 그림
- 근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에서 전통에 기울기 : 유교적 질서로 인해 재가 포기
- 1부1처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랑 좌절
- 가족을 이탈한 모성에 대한 비난 (<자유부인>)과 가족을 위한 감정적 희생 가치 부여 (<미워도 다시 한번> <사랑방 손님과 어머니>)



8. 참고문헌

김소영, 「근대성의 유령들」 씨앗을 뿌리는 사람, 2000

신상옥, 「난, 영화였다」 랜덤하우스, 2007

조준형, 「영화제국 신필름」 한국영상자료원, 2009

조희문, 「'申 필름' : 한국영화 기업화의 가능성과 한계」, 영화연구 14호, 1998

사진출처 www.naver.com